

8 인터뷰-제20회 창비신인시인상 수상자 유혜빈 동문(국어국문학 16)



제20회 창비신인시인상 수상자 유혜빈 동문을 만났다.

(사진=정다연 기자)

“시의 모호성, 현실의 모호함 잘 담아내는 것 같다”

유경민 기자 gmni0313@khu.ac.kr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소외된 삶에 주목하고 그것에 명료한 표현을 부여함으로써 사명을 다하는 것이 문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문은 경희의 젊은 문학가들로부터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짚어보려 합니다. 제20회 창비신인시인상을 수상한 유혜빈 동문(국어국문학 16)을 만나 현실의 모호함을 있는 그대로 담는 시의 매력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타인으로부터의 배움

“다른 세계가 저분한데는 존재하구나. 어렵잖이 알았어요.” 유동문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의 영향으로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국어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먼 산을 보며 칼릴지브란의 〈예언자〉 구절을 읊어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졸린 수업이라 생각했지만 유동문은 선생님의 세계에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평소 혼자 평론과 일기 쓰는 것을 즐

기던 그녀는 국어 선생님이 읽는 책을 따라 읽으며 자연스럽게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대학 시절, 그녀는 “후마니타스 강의를 들으면서 행복했다”고 말할 정도로 교양수업을 좋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프로이트, 카프카, 김수영 등 다양한 고전 읽기 수업을 즐겨 들었습니다.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움을 얻었습니다. 유동문은 “고전 읽기 수업에 가면 자기 세계가 뚜렷한 사람들이 많았다”며 “사람들과 친해지고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함께하는 시 창작

그녀에게 사람들과의 대화는 단순한 일상을 넘어 시 창작의 영감을 얻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유동문은 “자기 전에 오늘 누구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하루의 대화를 복기하는 편”이라며 “상대방이 한 말의 의도를 생각하고 그 사람과 나눈

대화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부분에서 시의 영감이 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시의 영감을 얻는 그녀에게 시는 취미, 쉬는 시간 같은 존재입니다. “시 쓸 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계속 썼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언제 행복했는지 물어보면 다양한 답변을 하지만 그녀에게 행복한 순간이란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는 일이 그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동문에게 시를 쓰며 생각을 비우는 때는 그녀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이 됐습니다.

시에서 비롯되는 편안함으로 자연스럽게 시를 쓰게 됐다는 그녀가 본격적으로 시를 배운 것은 국어국문학과 ‘시창작 실기’ 수업에서였습니다. 이전에 시 창작 경험이 있는 친구들과의 학회 활동 시간은 예쁘게, 멋있게 쓰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서는 부끄럽지만, 자신의 창작을 보여주

는 경험, 솔직하게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를 써보는 학생들이 모여 쭈뼛거리며 자신의 시를 보여줬던 시간은 그녀에게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모호함의 가치

그녀가 생각하는 시의 매력은 모호성에서 비롯됩니다. 정확한 수치 바탕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모호성의 가치에 대해 말합니다. 유동문은 “말로 표현하고 소통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구격화되고 표준화된 언어로 소통하지만 사실 현실은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고 생각한다”며 “시의 모호성이 그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잘 담아낼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시는 모호한 현실을 그대로 담았기에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동문은 그들을 위한 말도 남겼습니다. 그녀는 시가 읽힌다는 것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기에 시가 읽히지 않으면 내 경험이 더 커질 때를 기대하며 놓아두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시라는 것이 개인적인 부분에서 출발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것 같다”며 “어렵다고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세계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유동문은 시를 쓰는 후배들을 향한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다양한 형식적 시도를 통해 늘 새롭게 쓰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쓰다 보면 기존의 스타일이 굳어지고 편하고 안전한 형식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계속 그 안에서 맴돌게 된다”며 “유행하는 시의 여러 사조를 따라가려 하지 말고 처음 시를 쓰고 싶었던 자리에서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후배들에게 조언했지만, 항상 새롭게 쓰는 것은 유동문 자신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시 공부를 하며 다른 사람의 좋은 시를 읽다 보면 자연스레 드는 따라하고 싶은 마음을 경계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에 있는 방식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전합니다. 유동문은 “예전에는 동네 놀이터, 모임처럼 계속 소통하고 자기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공동체는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지만, 사회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을 수 있는 부분을 포착해내는 것이 이 시대 시인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